

2018년 공무국외연수 결과 보고서

1 출장개요

- 연수주제 :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정책 연구
- 연수목적
 - 장년세대에 대한 더 따뜻한 복지 정책 개발 운영
 - 선진국가의 장년층 지원 정책 연구로, 우리시에 맞는 순천형 인생이모작 지원 정책 개발 추진
- 연수기간 : 2018. 10. 30.(화) ~ 11. 6.(화) <6박 8일>
- 대상국가 및 방문기관

방문국가	방문기관	비고
영국(런던)	<ul style="list-style-type: none">• Open Age 센터• Greater London Volunteering	50+세대 지원 기관 자원봉사협의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ondon City Hall	런던시청
프랑스(파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Municipality of Paris	파리시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EHPAD Sainte-Marie	생마리 노인요양시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스통 몽무소 노인주택	노인주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Pole Emploi	고용센터

- 여행자 : 4명

2 출장내용

1. 영 국 (런던)

1 연수국가 현황

■ 국가 개요

- (수도) 런던
- (언어) 영어
- (면적) 243,610km², 세계 80위
- (인구) 약 66,574,000명, 세계 21위
- (통화) 파운드
- (GDP) 2조 8,089억\$, 세계 5위
- (종교) 기독교 59.3%, 이슬람교 4.8%, 힌두교 1.5%, 기타
- (사회보장제도)



베버리지('요람에서 무덤까지'를 주창한 영국의 경제학자 W. H. Beridge)로부터 시작됨. 국민이 기본적인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국민보험.산재보험.자녀수당.생활부조수당 등 여러 급여 제도들을 새로운 원칙하에 통합하여 실업.질병.은퇴 등 소득상실에 대비한 포괄적 사회적 보장제도를 도입하는 계기를 만들었음.

저소득가족을 지원하기 위하여 1970년에 가족소득보충제도가 도입되었고, 1998년도에는 최소한 한명의 근로자가 있는 가정의 경우 주당 일정 액수를 보장해주는 제도를 도입함.

오늘날 사회보장급여 지출을 보면 1949년에 국내 총생산의 4.7%였으나, 1996년에 약 14.3%로 증가하였음. 노인에 대한 급여의 비중이 가장 높고 장기질환 및 장애로 인한 비중이 그 다음이며 편부모에 대한 급여도 최근에 총 급여의 10%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실업급여는 경제상황에 따라 변화를 보이고 있고, 실업수당은 실업 뒤 1년간 받을 수 있음.

2 연수내용

■ 영국의 50+정책 및 사업

인구 고령화로 인한 생산인구의 감소로 영국 고용연금부는 영국사회가 직면하게 될 도전을 크게 두 가지로 제시했다.

첫 번째, 생산가능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어떻게 은퇴한 연금 수급자들을 지원하는 동시에 경제의 국제 경쟁력을 유지·발전시킬 수 있을까?

두 번째, 현재 일하고 있는 개인들이 어떻게 은퇴 이후 삶의 질을 보장할 수 있는 수준의 소득을 확보하게 할 수 있을까?

이에 고용연장과 50+ 세대의 고용 촉진으로 정책 목표를 정하고, 2010년 평등법을 제정하여 법정 퇴직연령 65세를 폐지하였다. 따라서 퇴직을 강제로 할 수 없고 고령자도 입사지원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영국정부는 고령인구의 노동시장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Age Positive’ 캠페인과 다양한 연령의 고용을 위한 시행지침, 고용평등 규칙, 근로에 기반한 성인학습 프로그램, 평생교육에 대한 강조 등을 대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또한 민간부문의 다양한 기관과 단체들과의 파트너십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Extending Working Life Sector Initiative’ 와 50Plus Works’ 등의 대표적인 정책들을 실시하고 있다.

지방정부는 50+ 세대들의 사회문화적 참여율을 높이고 사회적 연결망을 확장할 수 있도록 고령 노동자의 취업 계획과 고령세대의 웰빙 즉,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계획을 실시하고 있다.

민간단체들은 자영업에 대한 창업, 취업기회 확대, 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교류의 장을 넓히고 사회 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다.

■ 런던 Open Age 센터 (50+ 지원 센터)

- 기관 (위 치) St Charles Centre For Health And Wellbeing,
Exmoor Street, London W10 6DZ 영국
(연락처) 020-8962-4141 (<https://www.openage.org.uk>)
- Open Age는 1993년 설립된 자선단체로서 본부는 ‘St Charles Center for Health & Wellbeing(세인트 찰스 보건 및 복지 센터)’ 내에 위치하고 있음. 50세 이상의 중장년 및 노인들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잠재력을 성취하며 새로운 친구를 사귄 수 있도록 다양한 육체적, 창의적, 정신적인 활동을 제공하는 기관임.
- 6개 지역의 각 센터에서는 일주일에 60시간 이상의 활동을 실시하며, 80개가 넘는 정기적인 주간 활동과 지역 사회의 다양한 장소에서 클래스 당 £ 1.25에서 £ 3.00 사이의 수업료를 받고 운영함.
(컴퓨터 사용법, 스마트 폰 또는 iPad 마스터, 외국어, 예술활동 등)
- Open Age 센터의 고용지원 활동인 ‘Work Routes 50+’ 는 구직자들을 위해 무료로 상담, 교육, 일자리 제공을 지원함.
 - 자격 : 50세 이상의 구직등록자
 - 내용 : 구직자 등록, 교육 실시, 고용주와 구직자 연결 등
 - 방법 : 자선단체, 구직센터, 자원봉사센터 등과 파트너십을 통해 다양하게 구직서비스를 지원
 - 활동
 - Work Ready 실행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일대일지도
 - 세미나를 통해 우수한 기술 교육
 - Work Club에서 구직 / 지원 지원
 - 일하기 위한 첫 걸음으로서 자원 봉사 기회
 - 이력서 작성 방법 교육 및 대상자 관리
 - 교육 후 고용주와의 연결
 - 피드백을 통한 모의 면접을 포함한 면접 준비
 - 출근 비용으로 재정 지원
 - 취업 첫 6개월 동안의 직장 내 지원

■ 런던 Greater London Volunteering (런던자원봉사협의회)

- 기관 (위 치) City Hall, London SE1 2AA
(연락처) 020-7125-0151 (<http://greaterlondonvolunteering.org.uk>)
- 런던에서 자원봉사를 진행하는 지역 파트너십 기관임. 회원은 자원봉사 센터, 대규모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개발기관에 포함되며, 이 협의회는 90,000명 이상의 자원봉사자와 14,000개 이상의 조직에 활동 및 중간 서비스를 조정함.
- 런던기금 모금자, LVSC(London Volunteer Service Council) 및 GLV(Great London Authority)와 같은 파트너와 국가 및 지역에서 일하고, 지역자원봉사 센터와 지역, 국가에 정보를 제공함.
- 영국에는 162,965개 단체, 43억 8파운드 82만 7천명의 스텝을 고용하고 있으며, 32개의 런던 자원봉사 sector에는 12만개 자원봉사단체, 73만명의 혜택을 받고 있음.
- 영국 인구 6,600만명 중 40%정도의 참여율을 보이고 있으며, 2005년 영국 자원봉사자의 해, 2012년 런던 올림픽 등 이슈가 있는 해에는 약간의 참여율이 증가했지만 전반적으로 비슷한 추세임. 참여자의 94%는 사회에 기여(참여)하고 싶어서 자원봉사활동을 한다고 하며 주로 35~44세 & 55~64세 나이대가 많고, 이 중 80%는 기부활동자 임.
- 50세 이상 세대의 자원봉사자는 참여율이 높은편이며, 청소년 자원봉사 활동은 방학기간 중 학교에 독려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청소년들은 자라서 성인 자원봉사자로 참여할 가능성이 높음.
- 영국은 정부의 긴축재정으로 인한 공공영역 축소로 인해 민간영역 즉, 자원봉사영역으로 접근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음. 또한 기업의 자원봉사 참여방안을 장려하기 위해 3일 유급 봉사활동

(3days 3pays)을 준비하고 있음.

○ 자원봉사협회의 주요 사업

- 역량강화 정보 제공
- 회원 단체 네트워크
- 소식지 제작 발송
- 회원 조직을 위한 자원봉사 홍보 지원
- 반기별 자원봉사 포럼
- 자원봉사 대변 및 자문
- 협업지원

■ 런던 London City Hall (런던시청) ‘런던 소규모 지원금 프로그램’

○ 기관 (위 치) The Queen's Walk, London SE1 2AA 영국

(연락처) 020-7983-4000 (<https://www.london.gov.uk>)

○ 런던시는 2011년부터 시행해온 자원봉사 정책 ‘팀런던(Team London)’의 세부 재정지원정책으로 ‘팀런던 소규모 지원금 프로그램(Team London Small Grants)’을 진행하고 있음.

• (개요)

- 지역 자원봉사 단체에 재정지원을 하는 프로그램
- 큰 규모(도시 단위)의 지원금 혜택을 받기 어려운 작은 단체를 지원하여 시정부가 놓치기 쉬운 디테일한 지역사회의 필요를 충족

- 지원받는 단체들은 반드시 59~69세의 은퇴 예정자나 은퇴자들에게 높은 비율로 자원봉사 기회를 제공해야 함.
- 2016년까지 50개 이상의 단체에 55만 파운드(7억 8천만 원) 이상을 지원했고, 2017년에는 10만 파운드(1억 4천만 원)를 지원

- (목표)

- 60대(59~69세)의 은퇴 예정자나 은퇴자들이 축적해온 숙련된 기술로 지역사회에 긍정적 지원을 줄 수 있도록 도움.
- 더 많은 자원봉사자를 확보하여 공공 및 지역 커뮤니티 서비스에 대한 노년층의 접근성을 강화하고, 노년층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

- (주요 내용)

- 지원 절차 : 지역 커뮤니티를 위한 자원봉사 계획이 있는 단체들이 지원
→ 심사를 통과한 단체는 3월 27일부터 다음 해 3월 30일까지 봉사 · 캠페인 · 프로젝트 등을 진행 → 긍정적 효과를 보인 활동은 지원 연장

- (사례)

- 셀비 신탁(Selby Trust): 런던 토튼햄 지역을 중심으로 환경친화적이며, 지속가능한 다양한 자원봉사 활동을 빠르게 지역사회에 제공
- 월드 라이트(World Write): 런던 젊은이들이 글로벌 이슈에 대해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미디어 자선사업이며, 자원봉사자는 주로 방송제작을 가르치거나 도와주는 역할을 담당
- 비 어번(Bee Urban): 환경 분야의 전문가를 자원봉사자로 섭외하여 그들의 경험과 지식을 지역 커뮤니티들과 나눌 기회를 제공
- 프로비던스 로우(Providence Row): 지역의 노숙자들과 취약 계층에게 최소한의 잠자리 · 아침 식사 · 샤워 · 인터넷 사용을 제공하고, 그들의 정신적 육체적 어려움을 돕는 단체

2. 프랑스 (파리)

1 연수국가 현황

■ 국가 개요

- (수도) 파리
- (언어) 프랑스어
- (면적) 643,801km², 세계 43위
- (인구) 약 65,233,000명, 세계 22위
- (통화) 유로
- (GDP) 2조 9,251억\$, 세계 6위
- (종교) 카톨릭 83%, 이슬람교 10%, 개신교 2%, 기타 5%
- (사회보장제도)



프랑스에서 사회보험의 제도화는 유럽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당히 늦은 편이나 가족수당에서는 벨기에와 함께 선구자 구실을 하였음. 오늘날 프랑스 사회보장제도의 골격은 1945·46년에 거의 확립되었으며, '1967년의 개혁'에 따라 전국사회보험금고에 대신하여 질병보험금고, 노령보험금고, 가족·급여금고를 설치하였으며, 비농업수공업 및 독립근로자도 사회보장의 혜택을 받게 되었음.

가족수당은 1세기에 걸친 인구 정체의 해결이라는 측면에서 고려된 만큼 종류가 많음. 산전·출산·산후수당 등은 부수 의료비와 관계없이 지급되고, 또 수입과 자녀수에 대응하는 주거수당이 있음. 그리고 가족수당 외에 자녀양육을 위해 주부가 근무를 단념해야 할 경우 가계 보조를 위해 단일급여수당을 지급함.

GNP에 대한 사회보장비용의 비율은 다른 EU 국가들에 비해 그다지 과도한 편은 아니며, 사회보장비용은 의료비로 지출되고 있어 전체 인구의 60%에 달하는 비경제활동인구에 대한 부양급여는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

2 연수내용

■ Municipality of Paris (파리시청) 코로카시옹 제도

- 기관 (위 치) 16 Rue du Renard, 75004 Paris
(연락처) 1-42-72-29-45
- ‘코로카시옹’이란, 독거노인과 젊은 청년이 한 가구에 거주하며 함께 사는 것을 의미
 - 1980년대부터 1인 가구 증가로 인한 '사회 고독감'에 대처하고 있는 프랑스는 공공재단인 '프랑스 재단(fondation de France)'을 통해 다양한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음. 대표적인 것이 '사회적 카페' 프로젝트로 1인 가구들이 직접 카페에 모여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함.
 - 코로카시옹은 단순히 건물과 같은 인프라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1인 가구들이 그 공간에 모여 살면서 어떻게 사회 연계를 구축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통해 만들어졌음.
 - 또한 지자체마다 노인클럽을 활성화해 무연고 사망을 예방하고 고독사 확률이 가장 높은 독거노인들의 사회적 단절을 정책적으로 막고자 하고 있음.
 - 시행 초기에는 희망하는 노인수가 부족하여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파리시의 적극적인 협조로 성공적인 주거형태로 자리잡고 있음.

■ 프랑스 EHPAD Sainte-Marie (생마리 노인요양시설)

- 기관 (위 치) 1 Rue du Lieutenant Lebrun, 93000 Bobigny
(연락처) 1-48-30-31-41
- 자립적으로 생활이 불가능한 60세 이상 노인들의 집단 거주 숙소(노인홈)
 - 의존 등급에 따라(1~4급) 입소하며, 등급에 따라 이용금액이 다름.
 - 한 달 입소 금액은 평균 2200~2800유로이며, 자립 노인 홈이며 공공영역에서 운영
 - 모든 방에는 의료용 침대와 TV 등 여러 가지 기구가 설치되어 있고, 간호사나 여러 치료사 등 전문 의료팀이 의료적 서비스를 제공함.
 - 요양시설은 주기적으로(5년) 내부 평가를 실시하며, 이용자와 이용자 가족과의 토론을 통해 기관의 서비스 향상에 노력함.
 - 도시 중심부에 위치하여 이용자의 접근성이 높고, 약 80명의 이용객이 거주
- (특징) 간호사가 상근하면서 노인들의 건강상태를 상시적으로 살펴보고, 태블릿 PC를 통해 철저히 기록하는 등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

■ 프랑스 Maison de Retraite Gaston Monmousseau (가스통 몽무소 노인주택)

- 기관 (위 치) 9 Rue Gaston Monmousseau, 93150 Le Blanc-Mesnil
(연락처) 1-45-91-14-64 (<http://www.lesmaisonsderetraite.fr>)
- 1970년에 설립되어 도시 중심에 위치한 시설로 노인요양시설과 가정집의 중간 형태로 FOYER LOGEMENT(노인주택)에 해당
 - 보비니 지역사회활동센터에서 운영
 - 도심 한복판에 있어 생필품 구입에 편리하고, 문화시설이나 의료시설을 편하게 이용 가능
 - 비교적 건강하고 자립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60세 이상 노인들이 거주하며, 70여개의 작은 오피스텔 형태의 주거 시설
 - 목욕실과 부엌, 공용식당에 평일에 운영하여 점심식사를 제공하고, 다양한 프로그램도 제공
 - 대부분 자립 가능한 노인들이 이용하고 있어, 응급한 상황을 위한 조치는

따로 없음.

- 외부로 개방되고 있어 노인들의 만남의 장소이고 생일파티 등의 행사도 가능
- 60여명이 거주하며, 월 약 500유로의 이용료가 있음.
- 초기에는 내부평가를 시행했으나, 현재는 외부평가로 실시

■ 파리 Pole Emploi (통합고용센터)

○ 기관 (위 치) 43bis Rue des Chantiers, 78008 Versailles
(연락처) 1-39-67-52-00 (<https://www.pole-emploi.fr>)

○ (기관소개)

- 2009년 국립고용청(ANPE)과 지역실업보험 담당기구(ASSEDIC)의 합병을 통해 구직서비스와 실업보험 지급을 단일화하는 기구로 만들어짐.
- 고용서비스는 구직자의 직업지도 및 훈련, 신속한 취업에 우선 순위를 두고 있으며, 산업동향의 변화에 따라 구직자의 직업 훈련과정의 변화를 도모하고 있음.
- 웹사이트 및 핫라인 개설을 통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과 구직 취약계층 지원, 직업지도와 훈련을 담당하고 있음.

○ (주요사업)

- 구직서비스와 실업보험금 지급
- 실업자 등록과 직업알선 및 금융지원
- 구직자 진로상담, 직업교육 동반 및 구직활동 지원
- 실업보험 및 연대수당 지급
- 취업에서의 인종, 장애, 지역 등에 대한 차별금지 방지(차별 시 고발권)

○ (활동내용)

- 책임자는 정부가 3년 임기로 임명하며, 종사자는 5만명, 연 예산은 48억 유로(30유로 직원인건비 및 운영비, 5억 3천유로 훈련구직 등)
- 26개의 주지역사무소에 130개의 department 지역사무소, 902개의 지역 사무소가 있으며, 장애인, 청년층, 외국구직자를 위해 146개의 특수사무실이 활동

- 연간 3백만명의 구직등록이 있으며, 매일 평균 10만명 정도가 방문 예약
- 노동시장의 변동에 따른 직업교육과 전직훈련, 경력전환 및 재교육 실시
- 지역사무소에 구직등록→전화, 인터넷 예약→적성검사 및 직업기능검사
→직업훈련 또는 직업 알선
- 훈련기간 중 실업보험 수령(평균 소득액의 57.4%)

3 시사점 및 특이사항

① 장년 및 노년 세대를 포괄하는 방향의 50+정책 범위 확대

- 영국과 프랑스는 장년층만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정책이 마련된 것은 아니며, 고령자 정책 속에 장년층의 연령대를 포괄하여 욕구를 충족하는 전반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50+ 세대는 은퇴로의 이행기 세대이고 노인세대 또한 다양한 사회 활동을 계속하는 세대라는 점에서 양 세대간의 경계가 모호해졌을 뿐만 아니라 정책적 실효성 측면에서도 유리하기 때문임.
- 영국의 ‘오픈에이지’가 50세 이상의 중장년부터 노년층까지 포괄하여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령세대의 취업과 웰빙까지 아우르는 활동을 실시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음.
- 이는 미국과 일본 역시 마찬가지이며, 우리나라는 ‘인천고령사회대응센터’가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음.

고령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장년세대, 신노년세대, 노년세대를 모두 아우르는 포괄적인 정책이라는 큰 그림 속에서 50+ 세대를 위한 정책을 추진해야 하며, 타 세대(청년 등)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과의 연계 협력을 위한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② 민관학 협력의 거버넌스 활성화

- 영국은 지역 교육기관(지역대학, 시민대학), 자원봉사 등 민간단체,

병원과 그리고 프랑스는 고용센터, 사회복지시설 등과 긴밀한 연계를 통해 장년층의 직업능력개발 및 평생교육시스템을 강화하고 있음.

- 그 대표적인 예로, 영국의 ‘오픈에이지’는 『St Charles Center for Health & Wellbeing(세인트 찰스 보건&복지 센터)』 내에 위치해 있으며, 의료서비스와 함께 교육과 일자리 연계 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있음. 보건&복지 센터는 질병 치료의 목적보다는 건강 관리의 개념이 더 강하며, 이 센터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평생교육과 일자리 정보까지 함께 제공받을 수 있어 기관 간 연계를 통한 통합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어 협력 거버넌스의 성공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음.

50+ 정책 운영에 공공과 민간 기관 및 단체의 참여를 유도하고 이들의 협력을 통해 정책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시켜야 함.

- 평생교육지원 : (시)행복돌봄·평생학습과 등, (대학)평생교육원
- 직업능력교육 : (시)행복돌봄·평생학습과 등, (대학)평생교육원·폴리텍대학,
(공공기관)고용복지+센터, (민간)중장년일자리 희망센터
- 일자리연계지원 : (시)해당 부서, (공공기관)고용복지+센터, (민간)중장년일자리 희망센터
- 사회활동지원 : (시)해당 부서·자원봉사센터, (민간)각 사회활동 참여 단체 등

3 지역 문제는 주민 스스로 해결하는 활동 지원

- 영국과 프랑스의 보건&복지서비스는 관이 주도하기 보다는 민간 또는 지역 주민 스스로 해결하려는 성향이 강함.
- 특히 프랑스의 경우 복지시설이 있고 관에서 지원을 하긴 하나, 기본적으로는 가족내, 지역내에서 복지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함. 이는 서구 복지선진국 사회에서는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의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 오래된 문화의 하나이고, 특히 50세 이상의 장년층이 봉사활동, 자선기부 등 다양한 사회 참여 방식을 통해 이미 시민사회에 커다란 공헌을 하고 있어 가능한 것임.

- 영국의 협동조합, 민간단체들은 가정과 가족생활을 공유하는 사회복지 방식으로 ‘공동생활 보호자’와 수요자가 함께 생활하며 유대관계를 유지하여 공적서비스에 대한 의존도를 감소시키고 있으며, 프랑스의 ‘코로카시옹 제도’와 ‘가스통 몽무소 노인주택’도 그 예라고 할 수 있음.
- 여기에서 관의 행정적 역할은, 업무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등 그들의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임.

지역 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하려는 활동을 지원하여 활성화 시켜야 함. 사회협동조합·협의회·지역공동체·마을공동체 등을 통한 지원으로, 특히 사회적 경험과 역량이 뛰어난 장년층 중심의 활동가 구성을 통해 행정 수요를 감축하고 동시에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해 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우리시의 경우 복지공동체 사업 공모를 통한 활동 지원과 활성화 시키는 방안, 그리고 새꿈도시(실버타운) 조성에 따른 민간 활동 지원(교육, 보건&복지서비스, 자원봉사, 기부) 방안을 마련해야 함.

④ 은퇴 전문가와 50+ 취창업자의 매칭 지원

- 서구 유럽 국가의 대부분은 50+ 장년층이 독립적이고 독창적인 생활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경험이 풍부한 은퇴 전문 컨설턴트의 노하우를 활용하여 상담서비스와 컨설팅을 지원함.
- 영국의 자원봉사단체의 경우, 전문성을 보유한 퇴직자와 현직 종사자가 참여하여, 금융, 관리, IT, 전략, 홍보, 마케팅 분야 퇴직자를 그들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비영리단체나 공익단체와 연결하거나 연계 및 매칭해주고 있음.
- 프랑스의 고용센터는 그 대상을 50+ 장년층으로 제한하지는 않지만, 특수계층을 위한 별도의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음.

또한 전직을 위한 상담, 훈련, 직업교육, 경력전환 및 재교육을 실시하고 있어 은퇴 전문가를 활용한 취·창업 활동이 가능함.

인생이모작 지원사업에 50+ 장년층의 자원봉사와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수요자들의 상담서비스, 그리고 창업보육센터·고용복지+센터와 연계한 컨설팅 지원이 가능함. 특히 이모작 지원센터를 도시재생지역 내 설치할 경우 그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도시재생사업에 활용(청년창업 컨설팅 등)할 수 있으며 일자리 창출의 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임.